

# 현대로템, 폴란드 철도 진출 쾌거… 3358억 트램 수주

바르샤바 노선 123편성 낙찰  
2021년 하반기부터 납품기로  
우수한 에너지 효율 높은 평가  
터키서 안정적 납품실적 인정

현대로템이 사상 처음으로 폴란드 철도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현대로템은 12일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 트램운영사에서 발주한 3358억 원 규모의 트램 123편성을 낙찰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대로템이 수주한 트램은 바르샤바시 일대 노선에 운행될 계획이며 국내에서 전 편성 생산해 오는 2021년 하반기부터 납품될 계획이다.

트램은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로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 움직여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이다. 유럽, 일본, 미국, 홍콩 등 전 세계 각국



바르샤바 트램 조감도

이다.

폴란드에 납품하게 될 트램은 5모듈 1편성(양방향/단방향 운전실)과 3모듈 1편성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며 최대 시속 70km로 설계돼 약 240명(160명/3모듈)의 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다.

또한 트램의 특수한 운영 환경과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차량이 일정 거리(최소 120m 이상)에서 무가선으로 도(외부 전력 공급 없이) 운행 될 수 있도록 제작된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8월 터키 이즈미르시에 트램 38편성을 수주하며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상 첫 트램 수출을 성사 시킨데 이어 2015년에는 터키 안탈리아에서 18편성을 수주해 해외수출 실적을 쌓은 바 있다.

터키 트램 수주 당시 현대로템은 국내외 트램 납품실적이 없었지만 과거 전동차 사업을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성과와 글로벌 신뢰성을 인정받아 수주

에 성공할 수 있었다. 통상 국내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수주하지만 국내 실적이 없던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문제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이 부각되면서 대전, 부산 등 6개 지자체에서 18개 트램 노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번 폴란드 트램 수주계약으로 해외실적을 다수 보유해 국내 트램시장 개척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국내 상용화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도 해외 시장에서 트램을 수주했다는 것은 현대로템의 우수한 기술력과 기존의 성공적인 사업 실적을 인정 받은 증거”라며 “해외에서 인정 받은 실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트램을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LS엠트론 ‘트랙터’, 5년연속 북미 최고

2019 EDA 딜러스 초이스 어워드  
제품공급, 부품품질 등 높은 평가

LS엠트론 트랙터가 5년 연속 북미 최고 자리를 지켜냈다.

LS엠트론은 12일 북미 농기계딜러 협회(EDA) 주관 ‘2019 EDA 딜러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트랙터 제조 분야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EDA는 1900년 설립된 협회다. 매년 딜러들을 대상으로 트랙터 순위를 가리며, 올해에는 2516명 딜러를 대상으로 11개 항목을 평가했다.

LS엠트론은 종합만족도 7점 만점에 6.09점을 획득했다. 평균인 5.03점을 한참 상회하는 점수다. 대동공업(6.01점)과 국제종합기계(5.70점), 앤마(5.68점) 등 경쟁사들을 크게 따돌렸다. 제품공급(6.30점)과 부품품질(6.39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대우조선해양, 그리스서 LNG운반선 수주

2022년 상반기까지 인도  
올해 수주목표 32% 달성

대우조선해양이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사로부터 17만4000㎥ 규모의 LNG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22년 상반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마란가스사는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6척의 LNG운반선 중 5척을 발주한 대우조선해양 최대 고객사 중 하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마란가스사 LNG운반선 항해 모습

부분재액화 시스템 탑재로 기화율이 줄어들게 돼 선주사의 선박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LNG운반선에 적용되는 최첨단 장비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VR 선원교육시스템까지 선주사측에 제공하기로 하는 등 건조 이후 고객서비스 분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LNG운반선 6척, 초대형원유운반선 6척, 잠수함 3척 등 총 15척 약 26.9억 달러 상당의 선박을 수주해 올해 목표 83.7억 달러의 약 32%를 달성했다.

/정연우 기자

## LGU+, 5G 이노베이션랩 인기에 ‘구글’ 룸 추가 구축

2개월 간 210여개 기업 이용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지원

LG유플러스는 약 2개월 간 210여개 기업이 ‘U+5G 이노베이션 랩’을 이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강화를 위해 최근 5G이노베이션 랩에 ‘구글 룸’을 추가로 오픈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3일 개관한 ‘U+5G 이노베이션 랩’은 개관 첫 달인 지난 4월에 1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이용했다. 이어 5월에는 이용 기업 수가 110개를 넘어섰다. 6월 들어서도 첫째 주에만 30여개 기업이 방문해 기술 개발과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이용 기업이 꾸준하게 증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5G 생태계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5G 이노베이션 랩’에서는 5G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에 필수적인 5G 네트워크는 물론 기지국 장비, 각종 디바이스를 제공 받아 중소기업들이 아이디어



최근 오픈한 ‘구글 룸’에서 LG유플러스 직원들과 스타트업 직원들이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여만 있으면 이곳에서 손쉽게 기술 개발 및 테스트, 상용화까지 가능하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된다.

5G 상용 기지국 장비를 설치해 5G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가능토록 해주는 서버룸, 실드박스 등을 갖춰 외부 전파로부터 간섭 받지 않는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네트워크존이 마련돼 있다. 플랫폼존에서는 스마트폰은 물론 HMD 등 출시 전 각종 디바이스까지 테스트가 가능하다.

특히 LG유플러스는 5G이노베이션 랩 개관 2개월을 맞아 ‘구글 클라우드 룸’을 지난 10일 추가로 오픈했다.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들이 구글 애코시스템과 LG유플러스 5G를 활용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

‘구글 클라우드 룸’에서는 누구나 구글의 다양한 디바이스 역시 구입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들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기술 교육 수강도 가능하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아시아나, 안전강화로 정시성 지속 개선

정시율 국제선 94.8% 국내선 90.2%  
예방적 정비·점검 활동 강화 등 결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초 전개한 안전강화 노력으로 항공기 출발 지연이 줄고 정시성이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의 올해 1~5월 국제선 평균정시율은 94.8%로, 지난해(92.4%)와 비교해 2.4%포인트 개선됐다.

같은 기간 국내선 정시율은 90.2%로 작년 평균(85.3%)보다 5%p 가까이 나아졌다. 아시아나는 이 같은 정시율 개선이 기상 호조 및 항로 혼잡 완화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예방적 정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결함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1~5월 정비를 이유로 아시아나 항공기가 장시간 지연(출발 3



시간 기준)된 비중은 0.09%로, 작년(0.23%)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아시아나는 올해 초 ‘정비 신뢰도 향상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비 부문 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어려운 회사 사정에도 정비 분야 투자금을 작년(7361억원) 보다 21% 늘린 8922억원으로 책정해 과감한 안전 투자를 단행했다.

투자금 책정 후에도 아시아나는 정시 운항 및 안전운항 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 항공기 부품 확보 비용으로 680억원을 추가로 투자, 정비 분야 투자금을 총 9602억원으로 늘렸다. 작년보다 정비 투자금 규모를 30.4% 늘린 셈이다.

/양성운 기자 ysw@